

# 고흥군, 지역성장동력 신규사업 발굴

### 신규사업 중 내년 국비 452억원이상 확보 목표 5월말까지 신규사업 추가 발굴 건의 지속 예정

고흥군이 일자리창출과 주민체감 효과가 높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2021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군청 흉양홀에서 송귀근 군수를 비롯해 각 부서 실과단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국고 건의 신규사업 2차 발굴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15일 1차에서 보고된 신규사업을 비롯해 추가로 발굴한 사업을 총 망라한 68건 8951억원 사업에 대해 사업별 추진상황과 향후 국가예산 확보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흥군은 이중 2021년도 신규사업 국비예산으로 452억원이상을

요구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 1620억원 확보액 중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43억원보다 더 많은 국비 확보 목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흥군이 발굴한 내년도 신규사업은 국가 및 중앙부처별 중점 정책방향과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 시책사업과 연계해 고흥군의 지역적 잇점을 최대한 살린 사업위주로 집중 발굴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국가 유무인기 인공통합관제 인프라 구축(450억원) △비행시험 실증 인프라 기반 구축(140억원) △고흥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350억원) △송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897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고흥군은 2021년도 정



부예산안이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송귀근 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발굴된 신규사업 모두가 2021년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자"고 말했다.

덧붙여, "국도비 한 톨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 중앙부처에서 이슈화되고 전남도에서 선점하는 사업에 대한 동향을 보며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성군, 아산에 상당 보성녹차 기탁

### 면역력 증진·항바이러스 뛰어난 '보성녹차' 전달

보성군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돼 있는 우한 교민들을 위해 보성녹차를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한 보성녹차는 700여 명의 우한 교민이 하루 3번씩 2주 이상 마실 수 있는 양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녹차가 소개되면서 녹차의 수도인 보성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면서 "격리기

간 동안 우한 교민들이 보성차를 마시고, 면역력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차의 카테킨과 테아닌 성분이 항바이러스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탁월해 3개월간 섭취할 경우 호흡기 질병과 독감이 30%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녹차는 중금속 제거에도 효과가 좋아 최근 미세먼지 제외배출에도 도움이 돼 건강식품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강인규 나주시장, 신종 코로나 대응 촉각

### 감염취약계층 마스크 등 의료용품 지원

강인규 나주시장은 4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건소 선별진료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지난 설 연휴 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열의를 다해주시는 보건소 직원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우리 지역과 인접해있는 광주시에서 16번째 확진환자가 확인된 만큼 경각심을 일깨워 상황별 즉각적인 대비에 총력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 바이러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예찰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료용품 지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의료용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가물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여수 시민이라면...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보험 혜택

여수시는 시민과 공영자전거(여수랑) 이용자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난달 7일 여수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여수 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2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과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여수랑 이용자'는 여수 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3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최대 180일) 1만 원이다.

여수=김도현 기자

여수 시민이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여수시민자전거 보험과 공영자전거 보험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여수 시민 125명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위로금, 입원금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여수시는 해안을 끼고 달리는 명품 자전거길과 옛 전라선 철길 자전거 도로, 공유 자전거 '여수랑'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전거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 시민들이 자전거와 함께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 신종 코로나 예방 위해 '시민과의 열린 대화' 연기

여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5일과 7일로 예정돼 있던 남면과 삼산면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권오봉 시장은 지난달 10일을 시작으로 8회에 걸쳐 진행된 '시

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민선7기 비전과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다.

7개 읍면 지역 중 돌산읍, 소라면, 울촌면, 화양면, 화정면을 계획대로 진행했으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나머지 남면

과 삼산면 2개 지역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며 "신종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

며 차분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바이러스 적극 대응을 위하여 지난달 27일부터 운영돼 온 방역대책본부'를 3일부터는 권오봉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감염증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수=김도현 기자

## 곡성군, 찾아가는 지적서비스 운영

곡성군은 고령자 및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지적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적서비스'는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등 지적 관련 단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곡성군청 민원과 지적팀(061-360-8494)으로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으

방문해 상담과 함께 민원을 접수한다. 그리고 해당 민원이 처리되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군 담당자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께서 불편 없이 지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 영광예술의전당 공연 및 영화상영 취소

영광군은 우한폐렴으로 인한 정부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격상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여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실

시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영화상영을 연기한다.

관계자는 감염병 전파 예방을 통한 주민안전을 위해 취소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